"쇄신·화합의 조화" 고민 커지는 文

'용광로 선대위' 구성 놓고 장고 돌입

'이-박 2선후퇴론' '친노백의종군' 과제

쇄신과 화합을 내세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비주류를 중심으로 계속 분출되는 쇄신 요구와 모든 계파를 끌어안는 화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이다.

당장 비당권파는 "당 차원의 환골탈태가 없이는 대선 승리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쇄신론을 내세워 목소리를 높일 태세이다.

최근 '쇄신 의총' 소집 요구를 주도했던 비당권파 의원 14명은 지난 17일 여의도에서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갖고 "당이 후보의 대선 행보를 떠받치기 위해서는 보다 고강도의 쇄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원회가 전권을 대선 후보에게 넘기기로 결정하긴 했지만 이를 뛰어넘는 수준의 면모일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들의 시선은 사실상 '이-박(이해찬-박지원) 투톱 2선 후퇴론'으로 향해 있다.

한 참석자는 18일 "문 후보의 쇄신 드라이브가 탄력을 받으려면 지도부를 포함, 모든 사람들이 백의종군, 선당후사의 자세로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라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당직, 국회직 할 것 없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선 승리에 다가설 수 있는 방향으로 선대위 체제를 짜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라며 "'이-박' 투톱이 선대위 전면에 나서는 것은 대선 국면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기류가 형성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19일 국회에서 조찬 모임을 시작으로 매일 아침 회동을 갖고 쇄신을 압박하기로 했다.

또 이들 중 상당수는 '이-박' 2선 후퇴론과 함께 친노(친노무현)세력의 백의종군론도 주장하고 있다. 친노 핵심세력이 2선으로 물러나지 않은 한 화합은 물론 쇄신도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이다. 선대위도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친노 중심으로 운영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참여정부 민생 실패를 반성한다는 진정성도 보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측에서는 "특정인을 배제하는 방식으로는 화합만 저해, 대선 동력을 저하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비주류의 구심점 격인 김한길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친노 당권파에 대해 "그분들이 너무 패권적 세력으로 공고화돼 우리 세력 안에서 화합과 단결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많다"면서도 "친노는 빼고 이런 건 안 되고 모두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상민 의원은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작위적인 특정인의 2선 후퇴는 당의 단합에도 좋지 않다"라며 "문 후보가 쇄신과 단합을 조화롭게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 측 인사는 "문 후보가 당내 여러 흐름을 수렴하며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18일 경기도 성남 가천대학교에서 '한국 사회에서 여성 지도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을 한 뒤 학생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왼쪽〉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8일 경상북도 성주군 예산리 수해현장을 방문, 설거지를 하며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文 대선기구 '담쟁이 기획단' 1차 인선

기획위원에 노영민·박영선·김부겸·이학영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8일 선대위 구성과 기본 선거전략 등을 짜기 위한 대선기획기구인 '담쟁이 기획단'(가칭)의 1차 인선안을 발표했다. 단장은 두지 않기로 했으며, 기획위원에는 3선의 노영민, 박영선 의원과 3선을 지낸 대구 출신의 김부겸 전 의원, 시민사회의 대부인 이학영 의원 등 4인이 임명됐다고 진선미 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기구는 종래 대선기획단의 역할을 담당하지만 단장을 중심으로 수직적 피라미드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따로 단장을 두지 않은 채 위원들이 수평적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된다.

진 대변인은 "문 후보는 대선기획기구의 구성에서부터 지난 16일 수락연설에서 밝힌 변화의 철학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기존 대선기획단이 단장을 정점으로 한 수직적 구조였다면, 이번 기구는 기획위원들이 전적으로 수평적 위치에서 전원이 대표이고 위원인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1~2일 내에 외부 기획위원 명단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진 대변인은 선대위 구성 시점에 대해 "추석 전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용광로 선대위'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근혜 "과거사, 할 말 다했다"

5·16, 인혁당 사건 기존 입장 고수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인혁당 발언'으로 불거진 역사인식 논란과 관련,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 진영의 핵심 관계자는 18일 "박 후보는 과거사에 대해 지금까지 할 말은 다했다"며 "오늘 특강에서 언급하더라도 새로운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 가천대학교에서 가진 특강에서 역사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한 당직자는 "박 후보는 이미 당시 인권침해 등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고 유가족에게도 사과했으며 만날 용의도 있다고 했다"며 "지금 와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후보로서 할 만큼 했다고 판단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후보는 지난 12일 당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과거 수사기관 등 국가공권력에 의해 인권이 침해된 사례가 있었고 이는 우리나라 현대사의 아픔', '피해자의 아픔으로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로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언급이 대선을 앞둔 박 후보에게 과거사와 관련한 최종 입장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박 후보 측 주변 인사들은 대선에서 중도층과 40대 등 핵심 유권자층으로 지지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5·16 쿠데타와 유신, 인혁당 사건 등 어두웠던 과거사에 대해 더욱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이처럼 역사관과 관련, 기존 입장에 더한 표현을 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의 대선 전략에 말려들지 않으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MBN '뉴스1'에 출연, "박 후보가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사과를 해도 민주당과 언론이 이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며 "이는 민주당의 정치적 쟁점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선거가 임박했는데도 계속해 역사관만 화두가 되고 국민의 민생을 챙길 정책에 대한 논의는 등한시되고 있다"며 올바른 역사 평가를 원한다면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고 역사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검증을 진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손학규 광주캠프 해단식…"정권교체 헌신"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는 18일 "어떤 방법으로든 정권교체를 위해 지지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결과 문재인 후보에게 모바일 투표에서 밀리며 2위로 석패한 손 전 대표는 이날 광주·전남지역 선거캠프 해단식에 참석해 "예전과 같이 칩거는 안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손 대표는 어떤 방식으로 정권교체에 힘을 보탤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정권교체를 이해 어떤 방법으로 헌신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밝힐 때가 아니다"며 "여러분에게 조만간 그 방법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선과 관련해서는 "귀신에 홀린 기분"이라며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지만, 승복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손 대표는 국립 5·18 묘지를 찾아 헌화·참배한 이후 상경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가 라운지

서정성 "광주 자살예방센터 운영 성과"

광주시의회 서정성(민주·남구2) 의원은 18일 "광주시가 운영하는 광역형 정신보건센터와 자살예방센터 등의 운영 효과로 광주지역 자살률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의 자살률이 지난 2010년 30.7명에서 지난해 26.1명으로 줄었다"며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5번째로 높았던 자살에 의한 사망률도 지난해는 14위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주 북구의 경우 정신보건센터가 상시 운영되면서 자살률이 19%가 줄었다. 서 의원은 "지난해 광주시의회가 제정한 '광주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역형 정신보건센터와 자살예방센터 운영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손재홍, 지역 선거구 의정보고회 성료

광주시의회 손재홍(민주·동구2) 의원은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손 의원은 14일 동안 자신의 선거구인 지원 1·2동, 학운동·학동·서남동·지산 1·2동 주민센터에서 보고회를 가졌다. 손 의원은 보고회에서 도심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구 활성화 방안으로, 지산유원지~증심사~아시아문화전당으로 이어지는 '관광 삼각벨트' 추진과 지역 예산에 대해 설명했다.

손 의원은 "초선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 지역민과 소통의 폭을 넓혀 한발 더 주민 곁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더 큰 세상, 깊은 감동의 서비스
다와옥션
www.dawaauction.co.kr
다와옥션 부동산 경매학원
호남유일의 정통
경매학원!
불만족시 수강료
전액환불!
실전기본반 : 매주 수요일
오전 : 10시 30분/오후 : 저녁7시
(3개월 16주 과정 25만원)
강사 : 이 정석 교수(저자직강)
목요특강 : 매주 목요일
오후 : 7시(교육참가시 확인요망)
(교재비포함 수강료는 1-2만원)
과목 : 세무,민법,부동산정책,기타
기본경매외 보수교육
◎수시모집중(기수별 선착순 30명)
◎국내유명강사 초청 특강(강좌외)
☎ 문의 062-352-8589 (010-8004-6767)
남구 월산동 돌고개역 1번 출구
신한은행 4층(구.전남경찰청 4거리)

이지공인중개사
(급매)광주북구 오치동 아파트 밀집지역내 5층상가(대지166p, 건평 470p,5층은 주택)매가 17억(보.융.6억 포함), 월수940만
임야,토지,전답
▶광주 동구 선교동 벤처배후단지 대지1014평(3353㎡)사정상 급매 대로 35m 도로접함, 투자가치높음. 매가21억
▶화순군 이양면 초방리 산14-1임야77,727㎡(23,512평) 매가 평당5천원
▶광주 서구 매월동 자연녹지 46,596㎡ (1,412평) 매가평당100만
▶나주시 문평면 잡종지 6차선도로450M 접함 15,638㎡(4,730평) 매가 평당20만원
▶곡성군 삼기면 월곡리 임야 5만천평, 평당1만원 절터 및 연수원 부지적합
▶광주 서구 매월동 공구상가부근 답8,433㎡ (2,550평)매가평당90만
▶장성 서삼면 대곡리 대528평(계획관리지역 도로여건좋음)
▶화순 동면 서성리 호수부근 전원주택 펜션부지(전망 아주좋음)대210평 매가 평당 70만
▶무안군 운남면 연리 계획관리지역 2700평 2차선 도로120m접,지대높음 매가평당15만
▶장성 남면 2종주거지역 대지660㎡(200평)평당50만 창고주택공장적합
기타물건 다량보유
매매,교환(토지,상가,임대)
▶장성 남면 2종주거지역 대지660㎡(200평)평당50만 창고주택공장적합
▶담양 봉산면 대추리 과수원부지 대형차량 진입가능, 창고 공장,전원주택 적합
▶함평 나산면 초포리 12,990㎡(3,930평)도로접,공장창고 전원주택 등적합
▶나주군 봉황면 덕곡리 2차선 도로접, 전,임야6,100평 매가1억5천만
광주 동구 수기동 대지 590평 평당 400만 중심상업지역 위치좋음
▶곡성군 오산면 조양리 매실밭 1,392㎡(421평)년수익5~6백만, 주말농장 전원주택 가족묘지등 매가 3,400만
▶장성읍 덕진리 대로변 공장설립허가지역 창고, 전원주택,공장등적합, 전10,100평 매가 평당15만
▶영광군 자동차 정비공장 대지570평 건평300평 20년 운영 자동차 검사장등 매매 6억(융자 1억5천 포함)
상가주택등
▶장성 북하면 약수리 백양사입구 모텔 및 식당 대800평 현성업중 매가17억
▶서구화정동 염주사거리부근 상가주택 준주거지역 대90평,건148평 보7천만 월540만 매7억
▶서구 풍암동 상업지역 최고상권 대121평 건524평,보1억8천만,월수1150만,매18억5천만 지하1 지상5층
▶광산구 흑석동 대로변 상가 매가22억(융,보5억포함)월수익1400만
▶동구대인동 대로변 사거리코너상가 매가12억5천만(융,보5억2천포함)월수익1,100만
전화 : 062-268-2834
HP : 010-6460-2834

랜드피아 공인중개사
상가임대
각화동 홈플러스인근
병의원, 사무실 적합
* 4~5층 각 130평
* 6층 110평
보5천 / 월200만
* 지하 140평
(임대가 및 조건조정가)
수익성 부동산매매
랜드피아오피스텔 매매
* 15평~29평
9~12% 높은수익률
치평동 근린상가 매매
* 매가29억~100억대
물건다량 보유
8%~10% 수익률
010-9731-8949
(치평동랜드피아 O/P 1층)

경매투자 부실채권 특수물건
경매상담
1.경매 배우면서 수익내실분
2.특수물건만 전문 취급
3.NPL 매입/투자비법 전수
4.단독/공동투자 가능
5.교육/임장비등 회비 550만원
자본주 모심 /10억이상
친절상담 H.010-3605-5000
(주)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못 받은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공증문서 ■대여금
■법원판결문 ■운송료
■각종채권 ■구상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